

# 李退溪의 詩歌와 道學\*\*

李 東 英\*

● 目 次 ●

I. 退溪의 生涯	3. 陶山十二曲의 의미
II. 學問적 業績	V. 退溪漢詩 속의 風流
III. 學問적 意義	1. 風流의 概念
IV. 陶山十二曲의 詩歌觀	2. 退溪詩의 분석 및 해석
1. 道學者의 文學	3. 退溪詩 속의 心像
2. 溫柔敦厚와 敬	VI. 맺는말

## I. 退溪의 生涯

退溪 李滉선생은 1501년(연산군 7년) 12월 25일 안동군 도산면 은계리에서 나셨다. 생후 일곱달 되던 다음 해 6월에 아버지 贊成公(이름 植)이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 찬성공은 예조정랑 金漢哲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潛·河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남기고 김씨부인이 29세로 세상을 떠났다. 다음 별대위 朴縵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4형제를 낳았으니 맏이는 濬요, 둘째는 瀼요, 셋째는 澄이요, 넷째가 퇴계 황이다. 그러니까 찬성공은 兩娶에서 모두 6남 1녀를 두었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오직 맏아들 潛만이 결혼하였고 그 나머지는 어린 나이로 남겨졌다.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퇴계학 부산연구원, 『퇴계학보』 창간호(1995) 게재논문

퇴계는 어머니 朴氏墓碣文에서 「대양 자식들을 훈계하시되 문예에만 힘쓰지 말고 더욱 몸가짐과 행실을 삼가할 것을 중요하게 부탁하였다. 그리고 사물을 비유로 든다든가 어떤 일을 붙잡아서 교훈을 하는데 그 때마다 친절하고 절실하고 경각심을 높여 주었다」고 하였다. 퇴계의 모친 박씨부인은 상당히 총혜하고 能幹하고 부덕이 높은 여인으로서 자녀들의 교육과 훈도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었다.

퇴계는 12세 때 숙부 松齋公 楸에게서 『論語』를 배우기를 비롯하여 20세 때 주역을 읽고 그 뜻을 강구하기에 침식을 잊다시피 하였다. 이 때 지나친 공부로 오랜 고질을 얻게 되었다.

21세 때 경남 의령의 許瓚의 따님에게 장가들었고, 23세에 서울로 올라가 태학(성균관)에 유학하였다. 이 때 사장만 숭상하는 부박한 士 習을 배척하고 일상의 언어 행동을 소학의 규범에 벗어나지 않게 힘썼다. 이때 河西 金麟厚와 특히 친하게 지냈다. 金河西는 퇴계보다 9세 연하이다.

퇴계는 1527년 27세에 경상도 향시의 진사시에 응하여 수석을 차지했고 생원시에 2등으로 합격했으며 이듬해 봄에는 진사회시에 2등으로 뽑혔다. 32세에는 문과별시에 응하여 第二人으로 합격했고, 33세 때에는 경상도 향거에 응하여 第一人에 천거되었으며 34세 때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이로부터 벼슬길에 나서게 되었다.

퇴계의 출사시기는 1534년 34세부터 1549년 49세까지로 본다. 그것이 바로 단양군수가 되고 풍기군수가 된 데까지이다. 그 뒤에도 벼슬을 아니한 것은 아니지마는 퇴계는 항상 사퇴하고 물러서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은퇴시기로 보는 것이다. 그 이후로는 대부분이 임금의 소명 때문에 할 수 없이 入京했다가 붙잡혀서 벼슬살이를 한 것이지 자진해서 留京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벼슬의 품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퇴하는 경향이었으며 정삼품 이상의 벼슬이 제수는 되었지만 받아들인 적이 없다. 실로 풍기군수의 사임장으로부터 70세가 되는 선조 3년 9월의 최후 사장인 乞致仕狀을 올리기까지 21년 동안에 무릇 53회의

사퇴서를 써서 올리었다.

퇴계가 세상을 떠난 1570년은 5월에 도산에 나와 여러 제자들과 易學啓蒙을 강론하고 7월에 易東書院에서 심경을 강론하고 9월에 다시 도산에 나와 계몽과 심경을 강론하셨다. 10월에 奇大升에게 주는 글에서 心性情圖를 논하고 11월 5일에 역시 기대승에게 주는 글에서 격물치지설을 고쳤다. 12월 3일 제자들에게 명하여 남의 서적을 돌려 보내게 하고 4일에 조카 穉에게 명하여 禮葬은 사양하고 비석을 세우되 小石의 전면에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고만 쓰라는 등의 내용을 받아쓰게 하고 그날 낮에 여러 제자들을 만나보셨다. 5일에는 壽器를 준비하도록 명하고 8일 아침에 사람을 시켜 매화분에 물을 주게 하고 酉時初에 누웠던 자리를 정돈하고 부축하여 일어나 앉아 편안히 考終하셨다. 22일에 「大匡補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가 追贈되었다. 1571년 3월 21일 도산 건지산 남쪽에 장사지냈다. 1575년 여름에 도산서원이 완성되어 扁額이 하사되었고, 1576년 12월에 文純의 시호가 내렸다.

## II. 학문적 業績

勤厚篤實하게 공부한 퇴계는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여기서 그 학문적 업적을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거니와 그 가운데 중요한 것 몇가지를 뽑아 언급해 보고자 한다.

첫째, 「聖學十圖」를 들 수 있다. 성학십도란 종래 유학자들의 학술이론 10종을 선정하고 거기에 퇴계의 견해를 첨가하여 그림으로 요약한 것이다. 그 십도의 내용은 太極·西銘·小學·大學·白鹿洞規·心統性情·仁說·心學·敬齊箴·夙興夜昧箴의 열 가지이다.

前五圖는 천도에 근거하여 인륜의 상도를 밝히고자 하였고, 後五圖는 심정에 근거하여 함양성찰과 일상의 거경 공부를 밝히고자 한 것으로

학문하는 목적과 절차를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天命圖」이다. 천명도는 본래 秋巒 鄭之雲이 만든 것이나, 나중 정지운이 퇴계를 알게 되어 퇴계에게 이 그림에 관하여 많은 문의를 함으로써 함께 숙의하여 이를 완성하였으니, 말하자면 천명도는 퇴계와 정추만의 합작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퇴계의 학문적 업적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천명도는 천인합일의 유학철학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그림으로 중요한 것이다. 자연의 원형리정의 원리와 인간의 인의 예지의 덕성, 그리고 인간의 심정의 문제, 즉 사단·칠정·인심·도심의 관계 등을 소상하게 도식화하였다.

성리학의 연원을 이론 학설로서 주렴계의 태극도설은 너무나 유명하거나 이 천명도는 그에 비하면 내용적으로 보다 자세하고 이론적으로 얼마나 정제된 도식인가를 일견에 알 수 있다. 천명도는 성리학적 우주관이 집대성된 도식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四端·七情辯」이다. 사단·칠정변은 위에 든 천명도의 설명에 나오는 사단은 理之發이요, 칠정은 氣之端이란 설명구에서 시작된 고봉 기대승과의 논변을 말함이다. 이 논변은 전후 7년의 장기간에 걸쳐 피차 5, 6차의 서신을 주고 받으면서 심정의 문제를 討究한 일대논변으로 이는 한국유학사상사에 있어서 가장 의의있는 성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변을 통해서 퇴계와 고봉은 그의 학문적 蘊蓄을 다하여 진지하게 인간의 심성을 파헤쳐 주자학에서 일찍이 천명되지 못한 깊은 문제들을 문제삼고 천명함으로써 조선조 성리학의 정수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 논변은 따지고 보면 성리학적 이론 천명의 면에 있어서만 의의있는 것이 아니라 퇴계와 고봉의 학문하는 태도에 있어서 후대 학자들에게 귀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값진 면모를 지녔다고 할 것이다.

넷째, 「朱子書節要」이다. 주자서절요는 모두 20권 10책으로서 퇴계가 편찬한 주자서선집이다. 주자전서에 실린 쓰는 그 양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또 朱書를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를 감안하여 퇴계가

주자서 가운데 꼭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서를 뽑아서 엮은 책이 바로 「朱子書節要」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자사상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주자의 난해한 서들을 일일이 독파할 필요가 없이 주자사상의 핵심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주자서절요이기 때문이다. 이 주자서절요를 길잡이로 해서 처음 주자사상의 길이 열렸다고 한다.

그만큼 주자서절요는 그 사상적 핵심을 얻는 편찬이었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이는 주자의 사상을 적절하게 파악한 퇴계였기에 그렇듯 精簡된 주자서절요가 찬집될 수 있었다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理學通錄」이다. 이것은 주자를 기점으로 해서 주자 제자들의 성리학적 계보를 기록한 책이다. 문헌이 부족한 당시 우리나라의 여건하에서 이렇듯 자세한 계보를 마련했다는 것은 여간 큰 공헌이 아닐 수 없다. 이 책도 주자학의 계보적 이해를 위해서 지대한 편의를 제공한 책이라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퇴계의 깊은 주자학 이해의 바탕 위에서 그 계보의 正脈을 찾고 학문적 정수를 규정한 곳에 이 理學通錄이 갖는 특별한 의의가 있다.

이상은 모두 퇴계의 성리학적 이론에 관한 업적이거나 퇴계의 높은 식견은 정치적인 면에서 있어서도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일단으로 戊辰 六條疏는 1568년 무진년에 왕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지 않고 당시에 있어서 필요한 여섯 조항을 밝힌 것이다. 즉 ① 왕통을 중시하고 仁孝를 온전히 할 것(重繼統以全仁孝), ② 참소를 막고 兩官을 친할 것(杜讒問以親兩官), ③ 聖學을 돈독히 하여 정치의 근본을 세울 것(敦聖學以立治本), ④ 道術을 밝혀 인심을 바로 잡을 것(明道術以正人心), ⑤ 腹心을 넓혀 이목을 통할 것(推服心以通耳目), ⑥ 修省을 성실히 하여 하늘의 사랑을 받을 것(誠修省以受天愛) 등 이다.

이 정치원리는 곧 유가의 덕치의 원리에 바탕한 퇴계의 정치철학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국문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할지라도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으니, 그의 「陶山十二曲」은 우리 국문학사상 불후의 걸작

이다. 그의 시조는 樂而不淫하고 哀而不傷의 그야말로 情理가 일관된, 다시 말해서 덕성과 정취가 융화된 작품이니 그의 跋文과 함께 조선조 시가의 표준이 되었다.

### Ⅲ. 학문적 意義

퇴계의 이기철학을 일러 흔히 주리적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이 표현이 적당한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우나 전혀 부당한 표현도 아니다. 퇴계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이기이원론에 입각한다. 그런데 이기철학에 있어서 이기의 관계는 아주 미묘한 것이다. 이기는 분명히 다른 두 근원이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를 <二而一>·<一而二>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기가 다른 두 근원이라는 점, 즉 理氣不相雜이라는 점에서 二이고, 그것이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는다는 점, 즉 理氣不相離라는 점에서 一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어떤 이는 理氣不相雜의 면을 강조하고, 어떤 이는 理氣不相離의 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물은 이기가 혼연히 융합된 一者로 존재하니 그러한 존재를 설명하는 데는 理氣不相離의 입장이 설득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심성의 문제 및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게 되면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理는 그 순수히 선한 이법적인 것이고, 氣는 형질적인 것으로 악의 원인을 지닌 것이다. 도덕적인 근원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理의 순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서 理氣不相雜의 입장이 요구된다. 퇴계에 있어서는 理氣不相離의 면을 충분히 인정하되 동시에 理氣不相雜의 면을 강조한다. 그것은 확고한 도덕적 근원을 확립하고자 한 데서였다. 도덕성의 강조는 유가사상의 본질이고 이 도덕의 철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 성리학의 理概念이다. 퇴계는 이 理에 대한 체득이 투철하였고 이를 강조한 곳에 퇴계의 철학적 특색과 의의가 있다.

즉 퇴계는 도덕적 인간상을 확립했고 동시에 철학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인간인 한에 있어서 도덕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한 도덕성을 강조하고 그 근원을 제시한 점에 있어서 퇴계는 지와 행을 겸전하게 혼용한 대인격을 이룩함으로써 조선조 유학자들의 한결같은 귀감이 되어 왔거니와 그 학덕은 우리 선인들의 崇仰의 대상에 그친 것만이 아니라 외국 일본의 학자들마저 <朱子後第一人者>라 칭송해 왔던 것이다. 이로써 볼 때 퇴계의 학문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주자학의 완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멀리 일본에까지 학문적 영향을 크게 끼쳤던 것이니 그의 학문은 근세 동양에 있어서 한 학문적 축을 이루었던 것이다.

#### IV. 陶山十二曲의 詩歌觀

##### 1. 道學者의 文學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고려 충렬왕 때 晦軒 安珦에서 비롯되었다. 안회현이 주자학을 소개한 이후 白頤正, 禹倬 등 제자를 거쳐 牧隱 李穡, 圃隱 鄭夢周 등 여말 유학자들에 의하여 크게 발달되고 三峰 鄭道傳, 陽村 權近 등 조선조초의 유신들에 이르러서는 주자학의 이론적인 면의 이해는 이미 깊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 權陽村의 「入學圖說」은 그의 주자학 이해의 심도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유학이 도학의 경지에까지 승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조선조가 주자학으로 관학을 삼아 교학을 주도해 왔거니와 이 주자학을 십분 소화하여 전체적으로 그 진수를 파악하여 성리학을 도학으로까지 고양시킨 학자는 바로 퇴계이다. 주자학의 내용인 성리학은 종래의 유학을 내용으로 심화시켜 천인의 관계, 즉 대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학문으로서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가 근원적으

로 합일됨을 주장한다. 따라서 자연의 이법과 인간의 도덕적 원리가 서로 합일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리학에 있어서의 인간의 도는 우주의 大道와 상통되는 것이니, 이에서 성리학은 도학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도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룩된다. 때문에 성리학적 공부는 지적 추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적 정신적 함양, 나아가서는 실천적 수련을 통해서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학문이다. 비록 논리적 이해가 어느 만큼의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실천적인 공부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그 이론적 이해는 공허한 이론에 그치기 때문에 성리학의 참된 체득의 경지에는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유학은 퇴계에 이르러 비로소 이론적으로 정지한 이해에 이르고, 또한 실천적으로 醇熟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퇴계는 제자 趙月川(穆)에게 「文學豈可忽哉 學文所以正心也」<sup>1)</sup>라고 했다. 이로부터 퇴계의 문학효용은 「正心」이다. '正心'은 거경공리의 기본 자세이다. 퇴계는 이학공부에 전념하려는 艮齋 李德弘에게 편지를 보내어 시서를 배우지 않은 이학이 어찌 있겠느냐고 하고 공자와 韓退之와 주자의 견해를 들어 설명한다. 또 李宏仲에게도 시 공부를 권했다.<sup>2)</sup> 시서와 이학, 나아가 문학과 도학은 대립적이지 않고 상보적이다. 유가의 생활태도가 '有爲(治人)'이니만큼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문장행위도 私物이 아닌 公器인 것이다.

퇴계는 이 점에 대한 견해로서 松巖 權好文(1532~1587)의 百韻詩를 받고 그 시의 병통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첨가하였다. 여기서 퇴계는 문학의 세가지 계층을 말하고 있다.<sup>3)</sup>

1. 儒學者의 文學 — 學問과 聯脈되는 것
2. 文章家의 文學
3. 場屋文學

1) 『退溪先生言行通錄』 제4책 권2, p.34 月川記條

2) 같은 책

3) 같은 책



이다. 퇴계는 유학자의 문학을 최고의 것으로 파악하고, 작가 스스로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퇴계는 과거를 통해 입신하고 文翰을 가지고 揚名하려는 것을 두고

翰墨爭名已喪眞	문장으로 이름 다툼은 참된 뜻을 잃으니
那堪學業又低人	학업이 낮아서야 견딜 수 있으랴
可憐往日如奔駟	어여빠라 지난 날은 말 달리 듯 하였으니
來歲工夫蓋日新 <sup>4)</sup>	새해는 공부하고 어찌 새롭지 않으랴

라고 하였다. 이는 翰墨과 學業에서 벗어나 日新할 것을 권면하였다.

퇴계는 문장가의 시와 학자의 시가 달라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으니 趙月川의 다음 시구를 보고 말하기를

水北山南謁大師	강북쪽 남산쪽에 큰 스승을 찾아보니
群朋一室析千疑	벗들이 한방 앉아사 온갖 의문을 토론하네
歸來十里江村路	강마을 十里길을 돌아오느라니
宿鳥趨林只自知 <sup>5)</sup>	잠잘 새들이 스스로 알고 숲을 찾아드네

이 시의 중구를 시인의 취미로 논한다면 매우 得意한 구절이지만 학문 의사로 보면 병통이 이 구에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自矜, 自喜, 自負한 태도가 進德 修業에 방해가 된다는 경계였다. 퇴계는 시에 있어서 虛誇를 억제하였다.

퇴계의 문학관은 유학자의 문학이니 詩作에도 인격과 학문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문학효용은 「正心」·「立言垂後」에 근본하였다. 공자가 시공부를 독려한 것처럼 퇴계도 시가 도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言行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4) “歲終，琴聞遠壑之金子厚 將示詩相勉亦以自警 警安道三首” 『退溪全集』(增補) 책 1, p.54. 大東文化研究院  
5) 『月川先生文集』, 권1, p.1.

先生께서는 시를 좋아하셔서 평생동안 힘을 기울이심이 매우 많았다. 일찍이 말씀 하시기를 나의 詩는 枯淡하여 남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에 대하여 힘을 기울임이 자못 많았기 때문에 처음 슬쩍 볼 때에는 비록 냉담한 듯하나, 오래동안 자세히 보면 의미가 없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시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가장 긴절한 것은 아니나 좋은 경치를 만나거나 흥겨운 일이 생기면 시를 짓지 않을 수 없다.<sup>6)</sup>

퇴계는 스스로 ‘於詩用力頗深’이라고 하였으니 시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 ‘詩於學者最非緊切’이라고도 하였다. 퇴계의 뜻은 사람들이 시를 지나치게 좋아하다가 시에 정신이 빠져 [玩物喪志] 그 바른 마음을 잃어 버릴까 경계도 하였다.

詩不誤人人自誤	시가 사람을 그르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그릇되네
興來情適已難禁	흥이 일고 감정이 맞으면 시를 안 지을 수가 어렵구나
風雲動處柔神助	風雲이 움직이는 곳에는 귀신이 시를 짓도록 도우나니
董血消時絕俗音	묵은 피가 사라지고 속된 노래가 끊어지네.

시가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喪志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흥이 일고 감정에 알맞으면 시를 안 지을 수가 없다. 詩想의 움직임에 귀신이 돕는다는 것은 詩作의 불가피성을 말한 것이고, 그러나 지나치게 文章·詞華에 집착되면 ‘人自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言行錄』에는 또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趙月川이 선생을 뵈고 시를 가르쳐 줄 것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6) 『退溪全集』 제4책 권5 類編, p.103.

몸으로는 행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헛되이 떠드는 것은 바로 내가 부끄러워 하는 바이라.(身不行而口從言 寔余之所愧也)

라고 하였다. 또

유가의 의미는 스스로 만 데 있지, 문예에 공교함은 유가가 아니다.(儒家意味自別, 工文藝非儒也)

라고 하였다. 퇴계가 학자의 문학을 희망하고 최고로 한 것은 인격과 학문, 인격과 시를 수신 進德의 일환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 일례를 佔畢齋 金宗直에 대한 논평에서 보면 알 수 있다.

金佔畢齋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일생 동안 한 사업이 글 지은 것 뿐이니, 그 문집을 보면 알 수 있다.(金佔畢齋 非學問低人 終身事業 只在詞華 上觀其文集可知)<sup>7)</sup>

퇴계는 한결같이 문인이기만 하면 보잘 것 없다(一爲文人 使不足觀)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주자의 다음과 같은 말과도 일치된다.

지금 사람들이 학문의 큰 뜻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고, 다만 시문만 배우려고 한다면, 벌써 第二義로 떨어진다.(今人不去講義理, 只去學詩文, 已落第二義)<sup>8)</sup>

그러면 퇴계의 문학관은 그의 생애가 말해주고 있듯이 이치와 실천이다. 문학도 이학공부의 相資로서 천인합일을 이상으로 삼았다. 즉 萬理를 추궁하여 덕을 밝히고, 人事를 닦아서 하늘의 이치에 합하게 된다. ‘吾儕萬理須探極天持人修方合一’의<sup>9)</sup> 도학자의 문학을 최고로 하였다.

7) 『退溪言行錄』 권5

8) 『性理大全』 권56詩를 포함. 王甦의 『退溪詩學』에서 인용 p.17 退溪學研究院, 1981.

## 2. 溫柔敦厚의 敬

퇴계는 「敬齋箴」에서 ‘항상 日常의 日用과 보고 생각하는 사이에 몸소 음미하고 깨닫고 살피서 연음이 있으면 敬이 성학의 시종이 된다는 것이 어찌 믿음직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성인되는 학문, 곧 성학하는 근본 요령은 ‘敬’이다.

‘敬’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심신이 하나로 집결되는 상태라고 했다. 경사상은 송대의 정이천과 주자에서부터 주장되어 온 사상이다. 그 발생의 연원은 송대 유학이 불교를 극복하려 하면서 생겨난 사상이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특유의 선종을 형성하여 정신을 통일함으로써 세상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선사상을 낳게 되고, 그것이 온통 중국 정신계를 휩쓸었다. 송대의 유학이 철학화되어 이론적으로 심화되는 한편 불교의 禪을 극복할만한 내면적, 정신적 원리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주류계는 처음 태극도에서 主靜을 내세웠다. 그러나 ‘靜’이 그 사상적 성격에 있어서 불교적인 생리와 통하는 것으로서 유교의 보다 적극적이고 생동적인 학문성격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을 느끼고 정이천은 이를 ‘경’으로 바꾸었던 것이다.<sup>10)</sup>

주자의 사상을 계승한 퇴계는 주자의 경사상을 더욱 철저하게 이를 실천하고 발전시켰다. 퇴계가 성학십도를 왕에게 올리는 글에서 「경은 생각(思)과 실천(學)을 겸하는 것이며 움직이고(動) 고요함(靜)을 관통하는 것이며 안(內)과 밖(外)을 합하는 것이며 드러나고(顯) 은미하는 것(微)을 하나로 하는 원리」라고 했다.<sup>11)</sup> 『禮記』의 첫머리에 나오는 曲禮篇에도 「예는 경하지 않음이 없다」(禮毋不敬)고 했고 『詩經』에서도 문왕의 덕을 찬양하여 ‘아! 한결같이 밝게 경에 머문다’(於緝熙敬止)라고 하였다.

퇴계는 일찍부터 마음(心)이 무엇이며, 경이 무엇이나에 관하여 깊은

9) 退溪和洪上舍應吉 『退溪全書 外集』 卷1

10) 李完栽 「退溪의 學問觀」 『退溪學研究』 第8輯 慶尙北道 p.30, 1988.12.5.

11) 退溪 『聖學十圖』

연구를 거듭했던 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기준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니 그것은 천인합일의 궁리이다. ‘경’을 어떻게 생활화하느냐에 관하여 퇴계는 처경이니 거경이니 또는 경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특히 퇴계의 『小學圖』에서 보면 경신함으로써 첫째 心術의 要諦를 밝히고 (明心述之要), 둘째 威儀의 법칙을 밝히며(明威儀之則), 셋째 衣服의 법제를 밝히고(明衣履之制), 넷째 飲食의 범절을 밝히게(明飲食之節)된다고 하였다.<sup>12)</sup>

‘경’의 참뜻은 무엇인가? 경과 같은 뜻으로 ‘恭’자를 써서 경의 뜻을 ‘공경’이라고 쓰기도 한다. 즉 경자를 ‘공경할 경’이라고 써서 경의 뜻과 음을 함께 표현하는 방식으로 읽는다. 그러나 ‘공’자와 ‘경’자가 지니는 의미는 다르다. 공은 외모로 나타나는 것을 뜻하고(在貌爲恭), 경은 마음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뜻(在心爲敬) 한다.<sup>13)</sup> 그렇다면 퇴계의 溫柔敦厚는 경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퇴계의 이학공부를 경철학이라고 한다. 퇴계는 주자학의 계승자면서 그 학문은 실천을 중시했으니 일찍이 「窮理而驗於踐履，始爲眞知」라고 하였다.<sup>14)</sup> 그가 평소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이치(敬)가 담긴 말로써 시를 지은 것이다.

同醉昏昏儻有醒	혼혼하게 함께 취했다가 설령 깬다고 할지라도
最難操守驗鐘聲	지킬 것을 잡고서 종소리 실험하기가 어렵네
直方工力皆由我	敬과 義지키는 공부 모두가 나에게 달린 것이니
休遺微雲點日明 <sup>15)</sup>	희미한 구름 때때로 밝은 해를 가리게 하지말라.

위의 시에서 긴요한 것은 後二句에 있다. 소위 「直方工力」이란 ‘敬以直內 義以方外’(공경함으로써 내심을 바르게 하고 의로써 바깥을 바르게

12) 退溪 『聖學十圖』

13) 金裕赫, 『李退溪의 人間像』 (靑塔書林, 1989. 7. p.143)

14) 退溪 『答李叔獻書』 『增補退溪全集』 권14

15) 같은책, 3권 詩 「存心」, ‘종소리’는 朱子の 「嘗記少年時在同安，夜間鐘聲，聽其日聲未絕，此心已自走作，因是敬省」에서 왔다.

한다. 周易하는 공부를 가르쳐서 한 말이다. 경과 의를 함께 지니고 안과 밖이 모두 투철해야 한다. 학문을 하는 데 중요한 점이 이것과 바꿀 것이 없다는 것이다. 대저 마음이란 한 몸을 주재하는 것이요, 경이란 또한 마음의 주재이기 때문이다. 「경」을 하면 「의」는 따르게 된다. 퇴계는 경을 지성껏 강조하였다.

### 3. 陶山十二曲의 의미

퇴계의 시대는 특히 예학과 성리학을 전심하여 연구하던 때였다. 하지만 퇴계의 학문연구는 광범위하고 시작도 많다. 그 중에서도 유일한 국문시가 「陶山十二曲」을 창작했다. 퇴계는 한시와 시조의 차이를 ‘詠과 歌’로서 파악하고, 시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흥(노래)을 시조에서 찾았다. 도산십이곡의 창작은 고려 사대부의 관능적인 <한림별곡>유를 못마땅하게 여겨 배척하고 새로운 풍류로서 山水遊賞을 통한 성정의 표출을 보였다.

다음은 도산십이곡의 전편을 통하여 퇴계의 온유돈후와 경의 문학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작품의 전편을 보여둔다.

#### 前六曲(言志)

- 一. 이런들 엇다흐며 더런들 엇다흐료  
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다흐료  
흐물며 泉石膏肓을 고터 므슴흐료
- 二. 煙霞로 지블삼고 風月로 버들삼아  
太平聖代에 病으로 늘거가뇌  
이등에 브라는 이른 허므리나 업고자
- 三. 淳風이 죽다흐니 眞實로 거쫓마리  
人性이 어디다흐니 眞實로 올흔마리  
天下에 許多英材를 소겨 말슴홀가

- 四. 幽蘭이 在谷호니 自然이 듣디도해  
 白雲이 在山호니 自然이 보디도해  
 이등에 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호애
- 五. 山前에 有臺호고 臺下에 有水 | 로다  
 때만호 굴머기는 오명가명 호거든  
 엇디다 皎皎白駒는 머리므슴 호는고
- 六. 春風에 花滿山호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이 사름과 호가지라  
 호말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아 어너그지 이슬고

後六曲(言學)

- 一.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蕭洒호디  
 萬卷生涯로 樂事 | 無窮호애라  
 이등에 往來風流를 날어 므슴홀고
- 二. 雷霆이 破山호야도 聾者는 못듣느니  
 百日이 中天호야도 瞽者는 못보느니  
 우리는 耳目聰明男子로 聾瞽곤디 마로리.
- 三. 古人도 날 못보고 나도 古人못봐  
 古人을 못봐도 네던길 알피잇네  
 네던길 알피잇거든 아니 네고 엇덜고
- 四. 當時에 네던길홀 멋히를 버려두고  
 어디가 든니다가 이제사 도라운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디므슴 마로리
- 五. 青山는 엇데호야 萬古에 푸르르며  
 流水는 엇데호야 晝夜에 굿디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디마라 萬古常靑 호리라.

六. 愚夫도 알며 흐거니 그 아니 식운가  
 聖人도 못다흐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등에 늙는 주를 몰래라

위의 도산십이곡은 言志(前六曲)와 言學(後六曲)으로 나누이고 합하여 十二曲이다.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그의 학문과 무관한 시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계가 도산십이곡을 지은 의지는 그의 「陶山十二曲跋」과 「書漁父歌後」에 의하여 알 수가 있다. 먼저 도산십이곡 발문을 보이고 작품을 살피기로 한다.

도산십이곡은 도산 늙은이가 지었다. 이는 무엇 때문에 지었는가. 우리나라 歌曲이 大抵 음왜함이 많고 뜻(言志)이 부족하다. 翰林別曲 같은 것은 문인의 입에서 나왔으나 교만하고 방탕하고 겸하여 비루하게 희롱하고 친압하여 더욱 君子의 숭상할 바 아니다. 오직 근세에 李膺六歌가 세상에 盛傳하니 오히려 그것이 이것(翰林別曲)보다 낫기는 하나 이 또한 세상을 희롱하고 불공한 뜻만 있을 뿐, 운유둔후한 실상이 없는 것이 아까운 일이다.

노인이 본래 音律은 잘 알지 못하나 세속의 樂을 듣기 싫어할 줄 알았다. 한가히 병을 수양하는 여가에 무릇 정성에 감동이 있는 것을 매양 시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의 詩와는 달라서 가히 읊기는 하지만 노래하지는 못했다. 만약 노래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속의 말(한글)로 엮어야 되었으니 대개 나라의 풍속 音節이 그렇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李氏의 노래를 모방해서 陶山六曲을 지은 것이 둘이니 그 하나는 뜻을 말함(言志)이요, 다른 하나는 학문을 말함(言學)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조석으로 익혀서 노래하게 하고 책상에 비스듬히 해서 듣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기도 하니 거의 비루한 마음을 씻어버리기도 하고 감발하며 화창하여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됨이 있음이라. 돌아다보면 내 종적(蹤跡)이 자못 어긋난 짓으로서 이같은 閒事가 혹 말썽이나 일으키지 않을까. 또는 이 곡조가 腔調에 잘 조화가 될는지 안 될는지 알지도 못하겠다. 이 일건을 싸서 상자에 넣어놓고, 때때로 내어 스스로 살피고 또 다른 날 보는 자의 버리고 취함을 기다린다.<sup>16)</sup>



퇴계는 위의 「陶山十二曲跋」에서 <六曲者二焉>을 창작한 동기를 말하였다. 그 효용은 <蕩滌鄙吝感發融通> (陶山十二曲跋)과 <寓興而忘憂> (書漁父歌後)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두 발문에 의거하면 종래의 시가에 대한 개혁의 의지가 있다. 그 시가관은 온유돈후와 경이다.

퇴계의 시가문학은 퇴계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퇴계의 학문은 넓으나 잡된 점이 없고,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티가 없었다. 경과 의를 양쪽에 지니고 명과 성을 함께 닦으며, 지와 행을 서로 어울리게 하고 동과 정을 서로 맞게 하여 정밀한 요소와 거친 요소를 합하고 안과 밖이 하나가 되게 하며 사물(物)과 내(我)가 일체가 되게 하고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한말로 해서 眞知와 실천이 퇴계의 학문이다. 그것의 저술이 방대하고 문학과 관계되는 기록만도 적지 않거니와 대저 문학연구자로서는 깊은 연구가 없었다.

퇴계는 무려 이천여 수의 시를 지었다. 그것은 대개 후학의 지도나 이학연구와 관계 없는 것이 아니니, 일찍이 그의 제자인 李宏仲이가 주자서를 읽으려 하자 다음과 같이 편지 하였다.

바라건대 공이 굳이 그것을 정지하고 모름지기 먼저 시경을 읽는다면 지극히 좋으리라 생각한다.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그 아드님 鯉에게 시경의 召南 부분을 읽지 않으면 담을 눈앞에 마주하고 보듯이 답답하다고 하셨으며, 당나라의 문호 한유는 「시서를 부지런히 읽어야 남는 것이 있지 부지런하지 않으면 때가 공허하다」라고 하였다. 가령 공이 이학문(朱子學)에 전심하려고 하더라도, 옛날부터 어찌 시서를 공부하지 않는 이학이 있겠는가? 원컨대 공이 이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기 바란다. 전일에 만났을 때에도 시경을 읽어라 권해 드렸는데 이제 다시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느냐고 물으니, 이는 공의 생각에 시경을 읽는 것이 심학에 그리 절실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인 듯하다. 그래서 그것을 읽지 않으려 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sup>17)</sup>

16) 退溪全集 2冊, 券43, 成大 大東文化研究院, p.383. 跋文을 지은 年條는 嘉靖四十四年(1565) 歲乙丑 暮春 既望이다.

17) 退溪先生言行錄, 卷2, pp.22~23.

퇴계가 ‘문학을 공부하는 까닭은 마음을 바로 잡는데 있다’(學文所以正心)는 것이다. 그러면 翰林別曲이나 李鼈六歌는 퇴계의 시가관에 어긋나는 문학이다. 또 龔岩 李賢輔의 漁父歌도 그것을 책정하기 전의 原詞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곳과 霜花店을 섞어서 그 音律을 알지 못할 곳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 「龔岩漁父歌跋」을 쓴 것은 <是歲獵月既望郡齋>이니, 이 해가 퇴계의 48세 때이다.<sup>18)</sup> 그러면 「陶山十二曲跋」은 65세 때 썼는데 그 발문에 ‘이 일건을 써서 상자에 넣어놓고, 때때로 내어 스스로 살폈다’는 것으로 보면 도산십이곡의 창작은 발문을 쓴 수년 앞일 것이다. 그렇다면 퇴계가 안정을 얻어서 학문적 작업에 침잠해 있을 시기가 아니었던가 한다. 이때 스스로 우리 시가에 대한 사명감에서 표준을 보이고자 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李氏六歌의 형식만을 빌어 前六曲은 言志, 後六曲은 言學으로 나누어 노래하였다. 그 표준이란 무엇인가 하면 유유돈후한 시, 허탄하지가 않고 실상의 시, 이것이 퇴계의 시가관이요, 그 시가관에 의한 창작이 바로 도산십이곡이다.

지금까지의 도산십이곡의 연구는 다소간 업적이 있거니와 근자 논문으로는 孫五圭의 「陶山十二曲의 自然」이 퇴계의 이학공부에 접근을 시도해 본 업적이었다.<sup>19)</sup> 그의 해석은 퇴계학과 무관하지 않는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런들 엇다흐며 더런들 엇다흐료  
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다흐료  
흐물며 泉石膏肓을 고터 므슴흐료 (前一曲)

1) 言志 一曲은 陶山前六曲의 기층이 되는 작품으로서 퇴계가 도산에 머물러 존심양지하는 의지의 서시라고 할 수 있다. 산수를 즐겨 그

18) 退溪가 48세 때(1548년) 丹陽郡守에서 10월에 豊基郡守로 배명되었으나 그 익년 9월에는 사장을 냈다.

19) 孫五圭, 「陶山十二曲의 自然」, 釜山大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1982.

높고 맑음을 흠모하여 고칠 바 없음을 ‘泉石膏肓’으로 함축하여 표현하였다.

煙霞로 지불삼고 風月로 버들삼아  
 太平聖代에 病으로 늘거가너  
 이등에 卮라는 이른 허므리나 업고자 (前二曲)

2) 言志 二曲의 ‘煙霞로 지불 삼는다’는 것은 자연과의 합일이다. 천리를 궁구하여 순리에 따르고자 하는 學人은 생활이다. 자연합일을 통하여 궁구하고 그 도를 체득함으로써 심의 明體를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며, 俗塵에 물들지 아니하여 喪志를 면할 수 있고 항상 빼어날 기풍과 고결한 품성을 지녀 그 생활에 허물이 없기를 소망하였다.

淳風이 죽다흐니 眞實로 거춧마리  
 人性이 어디다흐니 眞實로 올흔마리  
 天下에 許多英材를 소겨 말슴홀가. (前三曲)

3) 言志 三曲에서 淳風이란 거경궁리하는 선비의 기풍을 말한다. 불변하는 자연성을 체득한 도심은 사람을 속이지 아니한다. 그러니 어찌 天下英材를 속이겠는가. 도는 천하안위의 근본이 되며 인심의 正·不正이 治亂興衰와 관계가 있다.

幽蘭이 在谷흐니 自然이 들디도해  
 白雲이 在山흐니 自然이 보디도해  
 이등에 彼美一人을 더욱 낫디 묻호애 (前四曲)

4) 言志 四曲은 자연지성을 노래한 것인데 ‘幽蘭이 在谷’하는 것이나 ‘白雲이 在山’하는 것은 모두가 그 있을 자리에 있는 것, 즉 <各得其所>이다. 이는 퇴계 자신의 주체적 자연을 構策하는 것이다.

山前에 有臺호고 臺下에 有水 | 로다

때만흔 굴머기는 오명가명 흐거든  
 엇디다 皎皎白駒는 머리므슴 흐는고 (前五曲)

5) 言志 五曲은 자연과의 괴리를 경계한 것이며, 중장과 종장은 자연 지성의 노래이다. 그런데 종장의 皎皎白駒가 ‘머리므슴’하는 것은 항시 남의 일을 엿보는 마음, 퇴계의 자기 경계적인 시이다.

春風에 花滿山흐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이 사름과 흥가지라  
 흐들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아 어늬그지 이슬고 (前六曲)

6) 言志 六曲에서는 모든 삼라만상이 各得其所하는 자연지정을 파악 하여 자연과 자신과의 합일에서 양자를 동일한 세계를 泉石膏肓으로 ‘四時佳興이 사름과 흥가지라’하고 노래하였다. 이러한 자연합일에 의하여 달성되는 ‘至善’의 세계를 “魚躍鳶飛 雲影天光”으로 표현했으며 淸淨無垢한 영원무궁의 세계를 “어늬그지 이슬고”라고 노래한 것 같다. 시경 大雅篇에 <魚躍鳶飛 雲影天光>이 있다. 이는 자연합일로서 지선, 그 세계의 순일한 경지이다.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蕭洒흐디  
 萬卷生涯로 樂事 | 無窮흐애라  
 이등에 往來風流를 닐어 므슴홀고 (後一曲)

7) 後六曲은 言學이며, 이 장은 言學의 첫 장으로서 자연합일에서 천인합일에 들어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前六曲을 體라고 하면 後六曲은 用이라고 할 수 있다. 天淵·雲影臺가 있고 玩樂齋가 있는 곳에서 萬卷書 속의 성현을 되시고 그 도를 궁구하는 학문의 즐거움이다.

雷霆이 破山흐야도 瞿者는 물론느니  
 百日이 中天흐야도 瞿者는 물론느니

우리는 耳目聰明男子로 龔瞽곤디 마로리. (後二曲)

8) 雷震이 파산하여도 농자가 듣지 못함이나 백일이 중천하여도 고자가 볼 수 없는 것은 자연한 이치이다. 또한 龔瞽의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은 龔瞽의 본연지성이다. 그것이 자연지성은 아니다. 그러나 성을 다하여 성인의 학문에 노력함으로써 참됨[眞知]을 알게 되며, 자연지성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성을 다하여 배우고 노력하면 성인도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龔瞽가 되는 것이다.

古人도 날 몰보고 나도 古人몰봐  
古人을 몰봐도 녀던길 알피잇네  
녀던 길 알피잇거든 아니녀고 엇덜고(後三曲)

9) 이 言學三曲에서 퇴계의 古人은 누구일까? 言學二曲에서 聰明男子는 古人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고인이란 유가에서 성인으로 받드는 이상적 인간상인 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일 수 있다. 그 고인의 업적을 잘 躬行한 주자를 존중하여 窮行聖道の 결의를 보인 것이다. 여기서는 격리된 과거와 나의 현재와 후학의 미래를 길(道)로써 이어주고 있다.

當時에 녀던길홀 멋히롤 버려두고  
어디가 든니다가 이제사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덜미습 마로리(後四曲)

10) 이 言學四曲은 왜 진작 專一하게 학문을 궁구하지 못하고 벼슬 길에 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오는 것을 회오하여 그동안 버려둔 학문을 지금부터라도 궁행할 뿐 딴 데 마음을 쓰지 말고자 함이다. 퇴계가 벼슬을 사양한 것은 병과 노쇠를 많이 내세웠으나 그것은 주로 학문에 전력하고자 함인 것을 알아야 한다.

靑山는 엇데하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엿데흐야 晝夜에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 호리라.(後五曲)

11) 앞 章에의 <古人의 길>을 갈고 닦아서 성인이 되고자 하면 川流不息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청산이 만고에 푸르름과 유수가 주야에 그치지 아니함은 자연지성이다. 사람의 본연지성을 萬古常靑하게 하려면 학문을 하여 자연과의 합일의 경지[眞理]에 도달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는 이는 누구라도 성현[古人]이 될 수 있다.

愚夫도 알며 흐거니 귀 아니 쉬운가  
聖人도 몰다흐시니 귀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둥에 늙는 주를 몰래라.(後六曲)

12) 顔子가 말하기를 ‘요순은 누구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하고 외쳤다. 愚夫는 누구이며 성인은 누구인가. 龔瞽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요순도 될 수 있고 걸주도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의 본연지성[선성]을 至善에 이르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도산십이곡을 통하여 일관된 것은 인간정신이다. 사람은 도덕적인 본성을 가진 반면에 기질적 욕망도 타고났다. 현실적·순간적으로는 기질적인 욕망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개별성을 전제한 기질적인 욕구가 자행되면 상호간의 욕구가 서로 충돌을 일으켜 인간관계에 파탄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퇴계는 이것을 경계하여 이치를 情趣보다 더 무겁게 여겼다.

누구라도 국문학사상 퇴계의 시조를 말하지 않는 이는 없다. 李秉岐 박사가 시조는 儒冠에 의하여 완성을 보았다고 하면서 <퇴계는 도산십이곡이란 연시조를 썼는데, 역시 龔岩과 같이 한시의 그것을 답습한데 불과하다><sup>20)</sup>라고 하였으나, 이는 퇴계시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때에 趙潤濟 박사는 <퇴계는 오직 이학에 뿐 아니라

20) 李秉岐, 白鐵『國文學全史』新丘文化社, 1967. p.124.

문학에 있어서도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 수 많은 성리논문과 그의 시문은 가히 문학가의 문학을 능가하고 유가문학의 표준이 된 것이다.><sup>21)</sup> 라고 激賞하였다. 그 후 金慶漢씨가 도산십이곡의 문학성을 천착한 연구도 있지만<sup>22)</sup> 그것만으로 연구가 만족한 것은 아니다.

또 근자 崔珍源氏의 도산십이곡을 퇴계의 <경사상>으로 조명한 시문이 있다.

‘敬’은 문학의 情緒, 특히 ‘詩의 抒情’을 溫柔敦厚의 방향으로 이끌었다.  
退溪는 賞自然을

天雲臺 도라들어 玩樂齋 蕭酒흔디  
萬卷生涯로 樂事 | 無窮하애라  
이 등에 往來風流를 닐어 攄슴홀고 —「陶山十二曲」—

‘風流’라고 하였다. 이 작품은 초장·중장은 연구적 내용이지마는, 그러나 중장의 “이 등에 往來”는 도산서당 주위의 유람, 즉 「陶山雜詠」에 읊어진 ‘天淵臺·天光雲影臺·濯纓潭·盤陀石·東翠屏山·蓉芙峰’등의 산수유람일 것이다. 이 산수에 대한 賞自然을 풍류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문제가 된다. 흔히 풍류라고 하면 酒·歌·舞의 관능적 향락을 뜻하게 마련인데 「陶山十二曲」에는 그런 향락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퇴계의 만년의 도학자 생활로 봐서 그런것이 담겨질 리가 없다.

풍류가 賞自然을 뜻한다는 것은 이상하기까지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가·무를 연상케 하는 일반적 뜻과는 다른 것이며, 또한 고려시가에 나타난 풍류와도 다른 때문이다.<sup>23)</sup>

그러면 「陶山十二曲」의 풍류는 어떤 것인가. 고려시가에 나타난 풍류와 다른 점, 그것이 바로 퇴계의 시가관이니 앞에서 보인 발문에 한림

21) 趙潤濟, 『韓國文學史』 探求當:1968

22) 金慶漢, 「陶山十二曲에 對한 研究」, 趙潤濟博士回甲紀念論文集, 1964.

23) 崔珍源, 「國文學과 儒學」, 『韓國의 傳統思想과 文學』, 서울大出版社, 1982, p.139.

별곡을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하여 더욱 군자의 숭상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배척하였다. 그러면 어떤 점이 긍호방탕하고 설만희압한 것일까. 또한 그것은 왜 배척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崔珍源氏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림별곡류라고 하였으니, 그것을 고려시대의 것에만 한정한다면, 「翰林別曲」과 謹齋 安軸의 「關東別曲」, 「竹溪別曲」이 이에 포함된다. 李明九는 이 세 작품을 “「한림별곡」은 문인의 華麗·悠然·得意·新鮮·明朗·전망·疑慾에 찬 호탕한 기풍이 넘쳐 흐름이다.”, “「關東別曲」은 관인의 得意에 찬 感興이다.”. “「죽계별곡」은 신흥사대부의 得意·歡喜에 찬 현실적 生活享有다”라고 논하였다. 이 견해는 그의 “景幾體歌는 고려 무신집권 후 중앙 정계에 새로 등장한 신흥사대부의 이데올로기의 표상이다.”의 문학사관에 말미암은 것인데, 세 작품의 ‘호탕한 기풍이 과연 ‘신선하고도 명량’한 것인지 어떤지는 문제이거니와, 하여튼 호탕한 기풍이 넘쳐 흐르고 있음은 사실이다. 매장마다 되풀이 되는 ‘○○ 景 과 엇던 하니잇고’는 그 호탕한 기풍의 자랑스러운 외침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퇴계가 그런 것을 矜豪라고 평한 것은 마땅하다. 그러면서도 한편 放蕩·褻慢·戲狎이라고 평하였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한림별곡」은 8장 중 4장 이하는 모두 향락의 내용이다. 술(四장), 꽃(五장), 음악(六장), 樓閣(七장), 추천(八장)이 그것이다. 이 곡은 단오의 추천놀이에서 제작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참석한 문인들은 ‘黃金酒·栢子酒·松酒·醴酒의 술을 들고는

劉伶 陶潛 兩仙翁의 위 醉흔 景 과 엇더하니잇고(四章)

陶然히 취하기도 하고, ‘紅白芍藥·御柳玉梅·黃紫薔薇·芷芝冬栢의 꽃밭 속에서

合竹桃花 고은 두 분 위 相映 景 과 엇더하니잇고(五章)



달콤한 향내(情歌)에 젓기도 하고, ‘阿陽琴·文卓笛·宗武中琴·雙伽伽  
鼓의 名工·名妓가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며

一枝紅의 빗근 笛吹 위 듣고아 줌드러지라(六章)

밤 새우며 질탕히 놀기도 하고, ‘紅樓閣·婬妤仙子·珠簾半捲·登望五’  
의 勝景 속에서 仙子가 되어

綠楊綠竹 裁亭畔에 위 嘯黃鶯 반갑두세라(七章)

春興에 빨려들기도 하면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특히 남녀가  
짝지어 뛰는 추천놀이

唐唐唐 唐楸子·皂莢님긔 紅실로 紅글위 미묘이다.  
혀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하 위 내 가는디 늠갈세라  
削玉纖纖 雙手入갈혜 위 携手同遊景 긔 엇더흐니잇고(八章)

의 “혀고시라 밀오시라”는 그 즐거움이 절정이다. 이처럼 문인들은 그  
생활의 호화로움을 마음껏 즐겼고 마음껏 자랑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矜豪이거니와 요는 그것은 주·가·무의 관능적 향락은 도학자 퇴계에  
게는 성정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배척  
한 것이다. 「關東別曲」의

玉潛珠履 三千徒客 위 ㅅ오다 흐노잇고(三章)  
高陽酒徒 習家池館 위 四節 노니나이다(六章)

「竹溪別曲」의

半醉半醒 紅白花開 山雨裏에 위 遊興景 귀 엇더흐니잇고  
高陽酒徒 珠履三千 위 携手遊景 긔 엇더흐니잇고(二章)

의 술(高陽珠徒), 사치(珠履三千)도 역시 관능적 향락이다.

이상 세 작품을 살펴봤거니와, 그것은 주·가·무의 관능적 향락이  
다. 고려사대부는 그것을 抒情으로서 마땅하게 생각하였고, 그것이 그

들의 풍류였다. 고려 말기에 불리운 「漁父詞」 속의 “滿目青山一般月 風流未心載西施”의 풍유가 바로 고려사대부의 풍류다. 이 시구는, “滿目青山一般月”의 좋은 풍경이 있으니, 굳이 西施 같은 미인을 태우지 않더라도 풍류는 이미 족하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풍류는 본래 주·가·무적 향락이 중심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關東別曲」에서도 高麗珠徒·珠履三千의 향락은 ‘千古風流’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뜻으로의 풍류는 “風流酒色 一時人傑 날조차 몇 분이신고”(金絀 「花田別曲」)와 같이 조선조 초의 경기체가에까지 내려온다. 이와 같은 풍류를 퇴계는 “군자의 숭상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풍류의 차이는 고려사대부와 조선조사대부의 생활감정에 말미암은 것이다. 즉 고려사대부는 관능적 향락을 抒情으로서 마땅하게 생각하였고, 조선조사대부는 그것을 抒情으로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 향락적 풍류를 배척함은 그것만으로써 가능하였는가. 그렇지 않다. 규범을 이상으로 하는 조선조사대부라 하더라도 抒情은 필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향락적 풍류를 배척하였다면 그 대신 다른 것으로서 抒情을 메꿔야 할 것이다. 여기에 抒情의 매개로서 賞自然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陶山十二曲」의 풍류다. 그것은 「溫柔敦厚」를 지표로 삼았다.<sup>24)</sup>

위에서 崔珍源氏가 지적한 고려사대부의 酒·歌·舞의 향락 중심의 풍류와 조선조사대부의 규범과 온유돈후를 지표로한 풍류, 그 지향점을 분별한 것은 卓見이었다. 그런데 같은 麗朝의 작품이더라도 關東別곡, 죽계별곡을 한림별곡류로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죽계별곡 중에 보이는 <半醉半醒紅白花開 山雨裏에/위 遊興景 긔 잇더흐니잇고/高陽酒徒 珠履三千/위 携手相遊景 긔 잇더흐니잇고>(二章)의 술(高陽酒徒), 사치(珠履三千)는 矜豪적인 氣焰이기는 하지만 이미 安 軸의 작품에서

24) 崔珍源, 앞의 책.

는 <설만희압>과 <방탕>한 점은 가시어졌고 인물의 열거 자리에 자연이 들어와 있다. 퇴계의 경우 “일찌기 議政府舍人이 되어 노래하는 기생이 가득했을 때, 문득 한가지 기쁜 마음이 생김을 깨달았다. 이 조짐은 살고 죽는 갈림길이다.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金誠一錄)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퇴계학의 근본은 경공부(心の 專一)로서 이치적인 면을 우위에 둔 그로서는 당시 「翰林別曲類」의 矜豪한 과장이 못마땅했을 것이다. 도산십이곡은 온유돈후의 실상을 보인 작품이다.

퇴계에 있어서 풍류가 賞自然을 의미할 때 그 풍류는 인간과 자연과의 합일이다. 이것은 주체와 객체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 <하나>를 의미한다. 즉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물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 V. 退溪漢詩 속의 風流

### 1. 風流의 概念

일찍이 爲堂 鄭寅普는 「風流說」<sup>25)</sup>一文을 썼는데, 최초 ‘風流’의 기록을 崔孤雲의 「鸞郎碑序」에서 찾아 인용하여 보았다.

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으니 이르되 風流라. 실은 三教를 포함하여 群生을 接化함이니 집에 들어서는 孝를 다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忠誠되라함은 魯司寇(孔子)의 뜻이요, 無爲한 일에 處하여 말 없는 教를 행함은 周柱史(老子)의 宗이요, 모든 惡을 짓지 말고 모든 善을 만들어 행하라 함은 竺乾太子(釋迦)의 教化이다.<sup>26)</sup>

25) 鄭寅普, 『舊園鄭寅普全集』(1), 「風流說」, 延世大學校刊. 1983, p.253.

26)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說教之源, 備祥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加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敬,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鸞郎碑序』)

위의 글에서 가장 중대한 ‘풍류’ 두 자가 한 疑的으로서 여러가지 해석의 화살을 야릇하게 드티고는 있으나 ‘풍류’를 「玄妙之道」에서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 ‘현묘지도’는 곧 신라 때 화랑의 도이니 ‘풍류’의 임자와 ‘화랑’의 도는 分論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金富軾이 『三國史記』에도 원화·화랑의 시작되던 대개를 쓰되

三十七年 봄 비로소 源花를 받들기 시작했다. 처음에 임금이나 신하가 모두 사람을 알 수 없음을 고민하다가 끼리끼리 떼지어 놀게하고 그속에서 행동을 관찰하여 뽑아 쓸 양으로 미녀 두 사람을 간택하니 곧 南毛와 俊貞 두 사람이었다. 이를 중심으로 徒衆이 3백여명이 모였다. 두 여인이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다가 마침내 徒衆은 화목을 상실하여 해산되었다.

그 뒤 다시 미모의 남자를 데려다가 곱게 꾸며 화랑이라 칭하고 그들을 받들게 하니 徒衆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혹은 도의로써 연만하고 혹은 歌樂으로써 즐기며 산수를 유람하여 먼 곳까지 안 가는 데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이들의 正邪를 알고 착한 사람을 뽑아 조정에 천거하였다.<sup>27)</sup>

라고 하였다. 화랑의 일은 道義의 相磨와 歌樂의 相悅과 山水游娛로 어딘지 다니는 것에서 孕育鍛鍊되는 것은 장차 대신라의 조정에 오를 만한 善者로 이른바 賢佐며, 忠臣이며, 良將이며, 勇卒의 교육이었다. 이 점에 鄭寅普는 ‘道義는 숨은 것이며 첫째로 遊樂을 생각하여 둘 것이 라면……, 화랑의 하는 일이 풍류와 딴 것이 아닐 것이다’<sup>28)</sup>하고 화랑의 하는 일로는 遊樂이 가장 중요되는 것이니 風流와 遊樂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자 했다.

생각컨대, 「풍류」라는 말은 그 뜻이 매우 다양하고 미묘하다. 「풍류」는 국어에서 명사에 속한다. 그러나 풍류는 본래 다음과 같이 두 낱말로 이루어진 문장이었다.

27) 『三國史記』 眞興王 37年條. 조선사학회간(1928), p.7.

28) 鄭寅普, 위의 책, p.254.

「풍류」…바람이 흐른다. The breeze flows

위의 장문은 두 낱말을 잘못 연결시킨 것이다.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동사는 ‘불다(blow)’이다. 그리고 ‘냇물(stream)’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동사는 ‘흐른다(flow)’이다. 그러므로 「바람이 흐른다」(風流)는 것은 동사가 잘못 연결된 것으로 보고, 필자는 위의 문장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한다.

- (A) (1) 바람이 (2) 불다. (1) The breeze (2) blows.  
 (B) (3) 물이 (4) 흐른다. (3) The stream (4) flows.

문장(A)와 문장(B)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重文(compound sentence)이 된다.

- (C) (1) 바람이 (2) 불고, (3) 물이 (4) 흐른다.  
 (1) The breeze (2) blows and (3) the stream (4) flows.

위의 ‘바람이 흐른다(風流)’는 문장은 문장C의 2번(불다)와 3번(물)이 빠진 것이다. 그러면 ‘바람이 흐른다’는 문장에 ‘물’이 빠져 있으나 ‘흐른다’는 말은 ‘물’을 연상하게 하므로 우리들은 빠진 ‘물’이 문장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즉 풍류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가 ‘부는 바람과 흐르는 물’의 모든 것으로부터 얻어진 명사이다.

「風流」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①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② 운치가 있는 일 ③ 음악을 옛스럽게 이르는 말이 있고, ‘風流客’이니 ‘風流男子’이니 ‘풍류놀이’가 있다. 다음에 「멋」의 설명을 보면 ① 풍치있는 맛 ② 방탕한 기상 ③ 사물의 참 맛이라고 했다. 이것을 보면 옛 사람은 ‘풍류’라 하고 지금 사람은 ‘멋’이라고 쓴 것 같다. <멋을 안다>는 말

과 <풍류를 안다>는 말은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지난날 몇 분의 한국적 미의식으로써 ‘멋’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을 시인 趙芝薰은 「멋 研究」란 논제로 심도 있는 고찰을 보였다.<sup>29)</sup> 그의 견해를 보면

첫째, 멋의 형태는 이를테면 멋의 현상이요, 둘째, 멋의 표현은 멋의 작용이며, 셋째, 멋의 정신은 곧 멋의 본질이다. 여기서 멋의 현상이 멋의 작용의 결과란 것과, 멋의 작용이 멋의 본질의 형식화임을 알았고, 동시에 멋의 본질은 멋의 현상을 떠나서 파악될 수 없음을 보았다.<sup>30)</sup>

하고, 멋이 어느덧 생활 일반의 이념으로 미적 범주를 뛰어넘은 더 고차의 범주화로서 도의 경지, 聖의 가치로 파악하였다. 즉 멋은 특수미로서 진의 가치, 미의 가치를 종합하고 넘어서 성의 가치에 도달한 것, 미로 들어가 미를 벗어나는 ‘멋’은 ‘미’의 이상의 곧 善而美、眞而美이면서 또한 그대로 미의 범주라고 했다.

鄭寅普나 趙芝薰이 모두 ‘國有玄妙之道’를 ‘風流’로 파악하였고 趙芝薰이 이 풍류를 곧 ‘멋’이라고 했다. 즉 멋의 내용은 이 풍류도의 내용에서부터 연원한다고 하면서 멋을 모른다는 것과 풍류를 모른다는 것은 같은 말이라고 했다. 洪思重은 어느 외국인이 <멋>이 무엇이나고 물어왔을 때 <멋>이란 ‘우아하고 세련되고 고상한 생활태도’라고 대답했다.<sup>31)</sup> 풍류의 다양하고 미묘한 뜻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풍류는 자연의 영원한 움직임 또는 변화 또는 작용을 가리킨다. 이러한 움직임의 원인은 자연의 법칙이므로, 풍류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온갖 현상뿐 아니라, 그 현상의 원인이 되는 자연의 법칙도 가리킨다.

29) 趙芝薰, 「멋의 연구」-한국적 美意識의 構造를 위하여-, 『韓國人과 文學思想』, 金鵬九외, 一湖閣(1964).

30) 趙芝薰, 위의 책, pp.458~459.

31) 洪思重, 『한국인의 美意識』, 風流와 멋, 傳藝苑 刊, 1982, p.59.

(2) 풍류는 자유를 뜻한다. 그러나 풍류는 모든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풍류가 의미하는 자유는 앞을 막는 장애에 맞서서 싸우거나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의지나 힘과는 관계가 없다.

(3) 풍류는 자연스러움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공적인 것과 대조된다. 그러므로 위선, 과장, 사치, 허영, 지나친 소유, 지나치게 강력한 권위들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자연이 자체의 법칙에 따라 만든 자연물-산, 강, 호수, 숲 들-과 조화되지 않는 인공물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사람이 그의 적성이나 능력에 모순되는 욕망을 가지거나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부자연스러운 것에 속한다. 또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정서-기쁨, 슬픔, 흥분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거나 숨기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풍류는 안분지족하는 것이다.

(4) 풍류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천인합일의 인간애이다.

(5) 풍류는 우아함, 고상함, 너그러움을 의미한다. 능히 용납하는 마음이다.

(6) 풍류는 즐거움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즐기는 것, 친구와 함께 술마시며 즐기는 것, 즐겁게 노는 것, 음악을 감상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 시를 쓰거나 감상하는 것들이 모두 풍류이다.

(7) 풍류는 우리 민족의 전통으로서 특히 조선조 시대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 표준으로 삼았던 삶의 방식-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즐기는 방식을 의미하였다. 애정을 근본으로 한다.

퇴계(1502~1570)는 관리로서 국가에 봉사하고, 은퇴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시를 짓고,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일상 생활에도 성실하였다. 그의 모든 활동은 풍류의 이상에 맞추어 살았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퇴계가 주자학을 공부

했으나 그 기품은 주자와 다르다. 옛부터 주자는 剛毅하기를 정이천과 같고 퇴계는 온화하기를 정명도 나아가서는 안자와 같다고 했다. 퇴계의 많은 문자에는 그의 고상한 생활과 온화하고 자상한 점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 2. 退溪詩의 분석 및 해석

‘퇴계의 풍류’란 어떤 것인가? 본 항목의 목적은 퇴계의 시에 풍류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그는 많은 시를 썼다. 그의 대부분의 시들에는 풍류가 제재로서 또는 주제로서 다루어진다. 필자는 퇴계의 시 중에서 풍류가 제재나 주제로 다루어진 다섯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겠다. 여기서 밝혀줄 것은 원시에 충실하면서도 연구주제에 맞추어 재해석의 임의 번역이므로 원시를 첨가하였다.

### (1) 玩樂齋

천운대를 돌아 완락재에 이르니,  
 씨늘한 바람 맑고 맑아라.  
 한 평생 즐겨 수 많은 책 읽고 썼다.  
 그 동안 풍류는 얼마나 자주 오셨나?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蕭洒한데  
 萬卷生涯로 樂事 | 無窮하여라  
 이듬에 往來風流를 닐어 르삼할고

1행 속의 천운대는 퇴계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실제로 있던 언덕이고, 완락재도 실제로 그가 공부하던 방이다. 그러나 이 시 속에서 천운대는 그가 살아 온 자연과 세계를 암시하고, 완락재는 그가 풍류의 이상에 따라 즐겁고 자유롭게 살아온 것을 뜻한다. 2행은 늦가을을 암시하며, 2행이 의미하는 가을은 결코 그의 늙은 나이와 나쁜 건강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자연의 법칙, 즉 풍류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연 속의 모든 존재는 성실하게 그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다가, 낡아지고 끝내는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죽거나 사라진다). 1행과 2행은 이와 같이 그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 온 것을 뜻한다.

3행에서 그는 힘들게 공부하여 온 지난 날을 회상한다. 일반적으로 공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며, 풍류가 아니다. 그러나 3행은 힘든 공부가 퇴계에게는 자연스럽게 즐거운 일이었음을 말한다. 4행도 지난 날의 그의 삶이 풍류였음을 말한다.

(2) 聚勝亭

아무리 풍류를 즐겨도,  
 속세에서 풍류를 맘껏 즐길 수 있으랴?  
 강물도 자유롭게 멀리 흐르고,  
 산도 자유롭게 길게 뻗었다.  
 문노니 東亭 경계가  
 어디인지 구분없이 펼쳤구나  
 술 단지 기울여,  
 가려는 벗의 발걸음을 늦춘다.  
 城中那得盡風流      水遠山長各自由  
 試問東亭收勝處      一樽堪勸故人留

1연은 사람의 풍류에 관하여 말하고, 2연과 3연은 자연의 풍류에 관하여 말한다. 퇴계는 1연과 2연과 3연에서 사람의 풍류와 자연의 풍류를 비교하며, 사람의 풍류가 최고 수준에 이르러도 자연의 풍류에 미치지 못함을 이야기한다.

4연은 서로 대조되는 사람의 풍류와 자연의 풍류가 술에 의해서 조화되는 것을 표현한다. 친구의 만남과 헤어짐도 자연 현상과 같은 풍류이다. 떠나야 할 친구를 못가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풍류가 아니다. 그러나 친구와 헤어지는 시간을 늦추고 싶은 퇴계의 마음은 자연 발생적이므로 풍류이다. 여기서 두 풍류의 모순이 일어난다. 그런데 술마시고 싶은 욕구와 술마시는 행위는 즐겁고 자연

발생적이므로 풍류이다. 술은 떠나려는 친구의 의지와 잠시라도 그가 떠나는 것을 늦추려는 퇴계의 희망을 조화시킨다. 모순되는 풍류를 술로 조화시켜서, 2연과 3연의 자연의 거룩한 풍류에 접근하려는 것이 4연이다.

## (3) 押鳩亭

힘차게 달릴 듯 솟은 강가 언덕에  
그들과 함께 오르니  
내 마음도 솟는다.  
성벽 위에 뜬 구름 산 위까지 뻗치고,  
저녁 해가 기울어 바다 위에 떴다.  
큰 출세에 뜻을 담은 개미굴 같은 꿈이다.  
갑자기 스치는 허무한 느낌에  
국화를 보며 술 향아리 앞에 앉다.  
물가 모래밭 위의 해오라기 세상 일에 관심 없고,  
거룩한 풍류는 말이 없다.

斷卓灑江勢欲奮	與君登眺暢形魂
浮雲逸堞齊神嶽	落日低空近海門
萬世經營槐穴夢	一時感慨菊花樽
沙禽豈管人間事	浩蕩風流無語言

1연 1행의 “강가 언덕”(斷卓灑江)은 압구정이 있는 곳이다. 압구정이 자리잡은 언덕의 모양이 퇴계에게는 엄청나게 큰 물건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 같이 보인 것이다. 그의 문도들과 함께 압구정을 오를 때, 그는 강가 언덕의 인상에 영향을 받아, 그는 힘세고 큰 새가 솟아 오르는 것 같은 환상에 젖는다. 이러한 환상도 낮은 단계의 풍류에 속한다.

2연은 퇴계가 압구정에서 바라본 경치를 나타낸다. 성벽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건축물 중에서 매우 큰 건축물에 속한다. 그가 압구정에서 바라본 성벽은 압구정이 있는 언덕보다 높은 곳에 있고, 압구정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하다. 그러나 성벽의 길이나 높이는 자연현상인 구름이나 산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고 보잘 것 없다. 이 때 그는 1연에서 자신

이 높이 솟은 것 같던 느낌이 보잘 것 없는 느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다시 바다 위에 뜬 저녁 해를 보며, 구름이나 산보다 훨씬 높이 솟은 것 같던 느낌이 보잘 것 없는 느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다시 바다 위에 뜬 저녁 해를 보며, 구름이나 산보다 훨씬 높이 뿜던 저녁 해가 구름이나 산보다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보며, 또 한번 자연 풍류의 거룩함을 느낀다. 자연의 풍류는 엄청나게 높은 곳에도 있고, 그가 앉은 언덕 위의 압구정보다 낮은 곳에도 있다. 자연의 풍류는 높은 곳에 있거나 낮은 곳에 있거나 상관 없이 거룩하다. 이러한 깨달음은 1연의 낮은 수준의 풍류보다 더 수준이 높아진 풍류이다.

3연의 “큰 출세”(萬世經營)는 1연의 “내 마음도 솟는다”가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희망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개미굴 같은 꿈”(槐穴夢)은 그가 이제까지 품었던 출세의 희망이 고상하고 우아한 마음, 즉 풍류가 아니라 저속한 욕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의미한다.

4연 1행은 3연에서 그가 깨달은 거룩한 자연의 풍류에 비하여 그가 지녀온 출세의 욕구가 보잘 것 없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의 느낌(실망)을 표현한다. 3연 3행의 “국화”는 자연의 풍류 가운데 규모가 작고 수명이 짧은 풍류에 속한다. 그래서 인간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자연의 풍류에 속한다. 인간은 세속적 욕망과 세상의 구속 때문에 맨 정신으로는 자연의 풍류에 접근하기 어렵다. 술은 인간이 거룩한 자연의 풍류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다. 3연 3행에서 술을 마신 그는 강가 모래밭의 해오라기의 풍류가 인간의 풍류보다 더 수준이 높다는 것을 또 다시 새롭게 깨닫는다. 4연 2행에서 그는 인간의 사고력으로는 접근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浩蕩風流無語言) 우주의 법칙으로서의 가장 거룩한 풍류를 생각한다.

(4) 澗柳

봄이 와서

자연에 신비한 온갖 변화 일어나니

오! 이 버드나무의 풍류.

세월을 넘어 찬양받는  
 도연명과 소강절 두 늙은이  
 몇 번이나 풍류를 읊었는가?  
 無窮造化春 自是風流樹  
 千載兩節翁 長吟幾興寓

이 詩는 냇물가에 버드나무의 풍경을 보며 읊은 작품이다.

1행과 2행에서 퇴계는 냇물이 흐르는 주위의 경치를 보며 즐긴다. 그는 온갖 식물에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는 자연의 법칙에 감탄한다. 3행에서는 그의 시선이 읊트는 버드나무에 멈춘다. 그는 그 버드나무에서 자연 풍류의 극치를 발견하고 더욱 기뻐하고 감탄한다.

4, 5, 6행에서 퇴계는 현재의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풍류를 관찰하고 즐기며, 그것을 시로 표현한 중국의 유명한 두 시인을 생각한다. 또 4, 5, 6행에서 퇴계는 자연의 풍류에 감탄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인간의 풍류가, 현재 자신이 관찰하며 감탄하는 자연의 풍류에 비하여 하찮음을 말한다.

이 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퇴계는 1, 2, 3행의 자연의 거룩한 풍류와 4, 5, 6행의 인간의 작은 풍류를 비교한다. 그는 자연의 작은 부분인 버드나무 한 그루의 풍류가 유명한 시인의 시의 풍류보다 거룩함을 말한다.

(5) 嶺南樓

국화 피는 계절  
 남쪽 영남루  
 구름 걷히고 숲은 푸르고  
 맑은 물 위에 기러기 난다.  
 안개 낀 달밤에 피리 소리 들리니  
 술 단지 앞에서 소인의 흥을 즐긴다.  
 樓觀危臨嶺海天 客來住節菊花前  
 雲收湘岸青楓外 水落衡陽白雁邊  
 錦帳圍將廣寒月 玉簫吹入太清烟

平生儘有騷人興 猶向樽前踏綺筵

이 詩의 「영남루」는 경남 밀양에 있는 누각이다.

1, 2, 3행은 인공물인 영남루, 순수한 자연현상이 움직이는 구름과 파란 하늘과 맑은 물, 식물-국화와 푸른 숲, 그리고 영남루에 앉은 퇴계가 하나의 통합된 풍류를 이루고 있음을 표현한다. 여기서 그는 세상 일의 의무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관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영남루 주위와 경치와 분위기를 즐긴다.

1행에서 4행까지의 시간은 낮이고, 5행과 6행의 시간은 밤이다. 안개, 달, 안개 속의 달빛은 자연의 풍류이고, 피리 소리는 인간의 풍류이다. 여기서는 자연의 풍류와 인간의 풍류가 결합하여, 자연과 인간이 구별되지 않는 또 하나의 풍류를 이룬다. 그는 술을 마시며, 5행의 풍류에 흡수되고 통합되는 또 하나의 풍류를 만든다.

퇴계는 제자 龜巖 李 楨(1512~1571)과 며칠간 함께 있다가 보낸 뒤 편지에 작별의 섭섭함을 말하고 다음의 시를 지어 보냈다.

君去春山誰共遊	그대가 떠난 봄산을 누구와 함께 거닐고
鳥啼花落水空流	새 울고 꽃은 떨어지니 물만 흐르는구나
如今送別臨溪水	이별하고 돌아와 시냇물에 이르니
他日相思來水頭	다음에도 그대 생각나면 이 물가에 오리다.

이 詩에는 아름다운 풍경은 있으나 함께 즐길 사람이 빠졌다. 떠난 사람에 대한 인간애가 그 풍류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진 마음이다.

### 3. 退溪詩 속의 心像

퇴계의 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심상들이 나온다. 예를 들면, 정자, 국화, 버들, 새, 술, 그리고 인간애이다. 이러한 낱말들은 그 지시적 의미들이 (denotations) 시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제 기능을 하면서, 또

다른 의미들을 암시한다.

### 1) 정자

“취승정, 압구정, 영남루”의 제목은 정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 세 편의 시에서 정자는 시인이(퇴계가) 있는 공간이다. “완락재”는 정자가 아니지만, 정자와 비슷한 건물이다. “간류”는 제목이 정자가 아니지만, 이 시의 공간에도 정자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의 정자는 나무 기둥과 기와 지붕이 있으나, 벽이 없는 건물이다. 조선 시대에 한국의 정자는 곳곳에 지어졌다. 일반적으로 정자는 냇물과 숲이 있는 경치 좋은 곳에 세워졌다. 사람들은 정자에서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정자에는 벽이 없으므로 언제나 정자에서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흐르는 냇물을 볼 수 있으므로, “풍류”라는 단어는 정자를 설명하기에 가장 알맞다.

조선시대에 교육 받은 한국인들-재직 중인 고위 관리들, 퇴직한 관리들, 관리 후보자들, 벼슬을 원하지 않는 학자들, 시인들-은 정자에 가는 것을 즐겼다. 그들은 정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짓고, 술을 마셨다. 또 그들은 자연 경치를 즐기며 명상에 잠기기도 하였다.

풍류는 정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풍류는 정자 자체, 정자 주위의 경치, 정자를 찾아 가는 것, 정자 안에서 벌이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2절에서 소개한 퇴계의 시들은 조선시대의 교육 받은 지식인들의 생활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 2) 국화

국화는 “압구정”과 “영남루”에 나타난다. 조선 시대의 지식인들은 국화를 가장 아름다운 자연현상 중의 하나로 생각하였다. 한국에서 꽃은 대부분 봄에 핀다. 그러나 국화는 가을에 피는 꽃이다. 가을에 꽃이 피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옛 지식인들은 국화가 가을에 피는 것도 자연이 자신의 다양하고 신비로운 법칙을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이 꽃피기 어려운 계절에 국화를 피우는 것은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것이 사회에 혼란이나 부정이나 폭력이 있을 때 풍류로 정신을 발달시킨 사람들이 정의와 질서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자연의 요구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름다운 국화를 보고 그 향기를 맡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바라는 고상한 마음과 정의감을 품는 것도 풍류이다.

### 3) 버들

버들은 가지가 길고 가늘어서 바람에 쉽게 흔들린다. 그러므로 버들은 흐르는 냇물과 같이 자연의 질서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퇴계는 버들에서 발견하고 통찰한 풍류를 “간류”에서 표현한다.

### 4) 새

새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공중을 날며 이동한다. 그러므로 새는 외적인 구속이나 내적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상징한다. “압구정”의 해오라기와 “영남루”의 기러기는 세속적 의무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상징한다.

### 5) 술

술은 “취승정, 압구정, 영남루”에 나타난다. 퇴계의 술 마시기는, 술은 세속적 존재인 인간이 세속성을 버리고 세속적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연의 풍류로 들어갈 때 거치는 통과 의식이다.

### 6) 人間愛

퇴계는 자신이 평생에 나에게도 풍류(騷人興)가 있었다고 말했다.

퇴계의 문자 중에는 일상생활이 진솔하게 반영된 것은 편지이다. 子姪, 弟子, 交友에게 준 서간에서 풍부한 인간애를 볼 수 있다. 이 至情(인간애)이야말로 풍류의 善而美요 眞而美이다.

## VI. 맺는말

퇴계 이황(1501~1570)선생은 한국의 성현이시다. 그의 저작은 호 한방대(浩瀚龍大)하여 그것을 다 독파하고 논단하기가 어렵다. 오늘날은 전공분야가 있는 만큼 더욱 그러하다.

본고는 퇴계의 시가와 시가관을 중심으로 생애를 밝히고 학문적 업적과 학문적 의의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도산십이곡의 의미와 퇴계한시속의 풍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대저 퇴계의 시가라 하더라도 그것은 퇴계의 이학공부와 무관하지 않음을 유의하여 살폈다.

퇴계의 이기철학은 어디까지나 이기이원론에 입각한다. 理는 순수히 좋은 이법적인 것이고, 氣는 형질적인 것으로 惡의 원인을 가진 것이다. 도덕적인 근원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理의 순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서 理氣不相雜의 입장이 요구된다. 퇴계에 있어서는 理氣不相離의 면을 충분히 인정하되 동시에 理氣不相雜을 강조한다. 그래서 흔히 주리적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퇴계야말로 유학을 도학의 경지까지 승화시킨 분이다. 퇴계의 문학관은 유학자의 문학(학문과 관련되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파악하고 작가 스스로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한시와 시조의 차이를 ‘詠과 歌’로서 파악하고 시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흥[노래]을 시조에서 찾았다. 도산십이곡의 창작은 고려조 사대부의 관능적인 풍류를 못마땅하게 여겨 배척하고 새로운 풍류로서 山水遊賞을 통한 성정의 표출을 보였다. 퇴계의 시조와 한시의 창작은 온유돈후와 敬, 그리고 實相을 중시하여 虛誕하지가 않다. 또 조선조 사대부들



의 풍류를 퇴계 한시에서 검토해 보았다.

동양적 학문이 <修身>이라는 인격의 도야에 중심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교육 부분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서 ‘禮·樂·射·御·數’라는 광범위의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修身>이라는 엄숙한 사실 속에서도 <風流韻事>라는 것이 결코 경시된 것이 아니어서 <詩·酒·琴·棋>가 사류의 오락과 취미의 대상이 되어도 불손할 것이 없는 양자가 교양이다.

퇴계는 風流韻事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의 풍류는 덕을 바탕으로 한 자연과 조화의 질서요, 온유돈후한 인간애를 갖추었다. 태도 자세에 있어서 남에게 오만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얼굴 표정을 참되게 함으로써 남에게 신뢰감을 갖게 하고, 말씨를 조심함으로써 남에게 비루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은 풍류의 기본이니 군자가 아니면 풍류를 모를 것이요, 풍류를 아는 사람이면 그가 곧 군자이다. 조선조의 시가는 사람문학이고 그 典範은 「陶山十二曲」이다.<sup>32)</sup> 퇴계의 문장은 文·質과 華·實이 병존되어 있다.

---

32) 본고는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1984)에 있는 <李退溪 詩歌와 道學> 논문  
에 <퇴계선생의 文學觀>(1988), <퇴계시 속에 風流>(1991)를 합쳐서 새로  
정리한 논문이다.